

행복한 배화가족

함께 꿈꾸며 즐겁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거룩한 삶을 위한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믿음은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온전케 하는 힘이다.

믿음만 있으면 거룩한 삶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거룩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깊은 밤, 아이들을 재우고
말씀 공부와 중보기도에 매진한
속회 인도자 이아름, 이은미 한호철 집사입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오전 11시 캠펠홀
금요기도회 : 오후8시 기도실

섬기는 사람들

목 사 김영석 김은철
전 도 사 송민혜 (목회 및 심방)
송민천 (예배 및 교육)
간 사 박진성 (행정사역)
백수산나 (유아사역)
강영건 (찬양사역)

남선교회장 허경식 여선교회장 이은미
선교사역팀 김재홍 양육사역팀 한호철
재 무 김용석 새 가 족 함은혜
교 회 학 교 김미소 조 신 이주혜

· 지난주 통계

인원	76명
헌금	<p>십 일 조 서민욱 이아름 감사헌금 강영건 김용석 유재연 서광희 이병홍 홍병진 주일헌금 강영건 권태성 김백준 김영서 김예현 김용석 유재연 김은철 김재홍 김선민 김택운 김택현 남윤지 노준영 박세연 박소영 서하랑 송민혜 송윤경 윤서진 배성경 이동근 이은미 정우석 조 신 조영남 정유민 조진철 주 영 최명성 최영광 태미선 허경식 함은혜 목적헌금 성임숙(일천번제)</p>

· 대표기도

10.28	송민혜 전도사
11.4	송윤경 집사
11.11	유재연 집사
11.18	이아름 집사

배화교회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주보 제 2018-42호

2018.10.21

성령강림 후 제 22주
주일오전 11시 캠펠홀

예배 Worship Service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회 중 :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다함께 :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사도신경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
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 하늘 보자

대표기도 송민천 전도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및 찬양

* 헌금위원 : 김용석, 한호철

-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으소서
-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마태복음 10장 5-8절, 28-33절

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28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 김영석 목사 두번째 설교, 흔들리니까 신앙이다!

파송찬양 및 축도* <밀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금요기도회
 <사도행전 10장>
40일 아침기도회
 <손으로 묵상>



www.baewhach.kr
 카카오톡 친구 "배화교회"



새가족환영 문지혜 성도님과 권태성 성도님이 배화교회의 새가족이 되셨습니다.
주일애찬 이요한, 조신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감사 점심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배식 및 정리 오늘은 4속(51속), 다음 주는 3속(일상속)입니다.

은혜나눔 TMG (too much grace) <2속 - 쓱쓱속 편>

성도들이 지난 속회모임에서 나누었던 '넘치는 은혜'를 소개합니다.



성경: 엘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던 것 같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남편(윤서진 성도)을 위해 기도한 지 1년이 되었다. 이번 속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즘 남편은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기도부터한다. 어제는 카페에 가서 속제(속회성경공부)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재홍: 생각해보면 나는 이슬이가 태어날 때까지 성별, 이목구비 등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

영건: 하나님이 너무 좋고, 친밀하고 싶어서 너무 편하게 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 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혜: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 질문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겠다.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윤지: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